

농어가 가뭄·고유가·일손부족 삼중고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온힘 시·도 합동 숙박 시설 등 점검 시설농가 난방비 추가 지원 나서 가뭄 대응 용수 공급 151억 투입

전남 농가들이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고유가·고금리 등에 의한 비용 증가, 생산 및 수확을 위한 일손 부족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 피해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유가·고금리로 인해 시설하우스 생산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농민기를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복지 증진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24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등유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올라 생산을 해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에 대해서는

난방비 인상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0여년간의 기록적인 가뭄에 대응해 용수 공급 예산 151억원을 긴급 투입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 물 공급 계획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불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인력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월 전통주에 여수 '방풍막걸리'

향긋·쌉싸래한 맛 일품

2월 전통주는 보리향 '영광소주'

전남도가 3월을 대표하는남도 전통주로 방풍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청량한 목 넘김이 좋은 '여수 금오도 방풍막걸리'를 선정했다. (사진) 방풍의 본명은 '갯기름나물'이다. 예부터 풍을 막아준다고 해 방풍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갯기름나물은 여수 금오도가 최대 주산지로서 이곳에서 연간 1346t이 생산된다.

김유희 금오도섬마을방풍 대표는 방풍 소비처를 확대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방풍막걸리를 만들었다. 막걸리를 처음 만든 김 대표가 방풍의 독특한 풍미를 막걸리에 녹여내기란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방풍즙을 7.7%로 듬뿍 넣어 특유의 향긋함과 쌉싸래한 맛을 녹여낸 막걸리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방풍막걸리는 저도주(6%)와 고도주(10%)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다, 깔끔하고 귀엽게 포장해 금오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념품과 선물용으로 구매했다가 그 맛에 반해 재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대표는 방풍막걸리 인기에 힘입어 증류주 '섬성'도 출시했다. 제품 이름도 여수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수의 유명한 섬 이름



을 따 오동도(18%), 금오도(25%), 거문도(45%)로 정했다.

2월을 대표하는남도 전통주는 영광 대마주조의 '영광소주'였다. 알코올도수 45도의 '영광소주'는 보리 산입 특구 영광에서 재배한 찰보리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증류한 소주다. 물로 희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보리 향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풍력산업협회 포럼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전망'

56개업체 참석 활성화 모색

사단법인 전남풍력산업협회(이하 '전남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해상풍력발전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전남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1회 전남 풍력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됐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남도 풍력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다, 이날 포럼에는 56개 업체 106명이 참석했다. 장충모 전남풍력산업협회 협회장(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신안군 어업인연합회의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 발표로 전남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의 전환점이 됐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회원사가 전남의 풍력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서로 뜻을 모아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균열 여부 ▲석축·옹벽·축대·가설건축물 등 흠막이 공사 전방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 위험 요소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해빙기에 대형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점검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15억원 투입

28일까지 접수...시설장비 등 지원

전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장비·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시설장비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을 대상으로 100개 사를 선정해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시설, 장비 교체 등에 총사업비 13억3300만원을 투입한다.

고도화 분야는 재정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10개 기업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기업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성,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시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토대 마련을 위해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전남도 2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근로자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 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남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 가운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있는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올해는 20개 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고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빙기 대형 건설현장 안전 강화

안전점검·사고예방 홍보 교육

전남도가 2~4월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도 발주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교육에 나선다. 전남지역은 해안가에 인접한 점질토 지반에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약지반에 조성되는 대형 건축물 지하 터파기 시 흠막이 붕괴가 발생해 지반 안정성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약화되면서 균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로, 전남도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발주 건설 현장 96개소와 도내

대형 건축 현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반 및 건설 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과 함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함께하며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균열 여부 ▲석축·옹벽·축대·가설건축물 등 흠막이 공사 전방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 위험 요소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해빙기에 대형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점검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개발공사 고객만족도 1위...역대 최고 점수

전국 381개 지방공기업 평가

전남개발공사가 '2022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사 참관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얻으며 전국 도시개발공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국 3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2.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만족, 전반적만족 총 5개 분야의 15개 항목을 전화와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전남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2.2점 상승한 91.3점으로 도시개발공사 전체 평균(85.7점)보다 5.6점 높고 지방공기업 전체 점수에 비해서는 10.1점 높게 나와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

장충모 사장은 "고객만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